

신당 '원샷 경선' 藥일까 毒일까

■ 세 후보 득실계산은

대통합민주당 지도부가 후반전 8개 지역경선을 14일 한꺼번에 치르는 '일괄 경선'으로 실시키로 하면서 정동영·손학규·이해찬 세 후보 측은 경선 관도에 미칠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후보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용하게 될 것 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괄경선은 정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손, 이 후보에게는 반전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우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 후보로서는 '신대세론'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 후보 측에서는 당초 6일 첫발인 전북경선에서 '물표' 열기를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 흐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일괄경선은 정 후보 측의 견고한 조직력 활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손학규, 이해찬 후보 측이 일괄 경선을 통해 역전을 노리는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로서도 순회경선을 할수록 여론지지도가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첫발인 경기와 서울



대통합민주당 경선 파행과 관련, 4일 오종일 대표, 김근태 전 의장 등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鄭, 상승세 꺾여 신대세론 제동, 일단은 거부

孫·李, 반전 기회... '鄭 죽이기' 역풍 우려도

등 수도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거에 상황을 뒤집는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협력을 받을 시간을 벌게 돼 조직력을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 측도 스스로 강하다고 자신하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 정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가능성도 갖게 됐다. 당초 모바일 투표는 4일부터 14일

까지 4차례에 걸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경선이 파행을 겪으면서 4~5일

에는 실시되기 힘들고 빠르면 주말계부터 시작될 것 이란 예상이다.

특히 두 후보 측은 불법·부정선거 논란의 현 국면을 계속 유지·확장시켜 정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상대적으로 반사효과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경선방식의 변화가 선두주자에게만 반드시 불리하고 후순위 주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바람몰이는 차단됐지만 정 후보의 견고한 조직력

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신당의 경선에 국민적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는 모바일 투표선거인단 모집 규모 역시 조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두 후보의 '정동영 죽이기' 공세가 역풍을 몰고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경선 규정에 대해 세 후보가 합의한 상황에서 신당 경선 파행의 원인 이 정 후보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적 단위에서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결집도를 더욱 고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온 DJ "10·4 선언 잘 됐다" 환영

오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연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 합의 소식에 대해 "잘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참석차 광주 방문길에 오른 김 전 대통령은 KTX를 타고 가던 도중 10·4선언 소식을 접하고 수행원으로 동승한 박지원 비서실장과 안주섭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대통령은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역에서부터 광주행 KTX에 탑승한 뒤에도 수행원의 지상과 DMB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지켜봤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대전역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역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문서를 출력된 남북 간 합의문 전문을 읽수, 이를 꼼꼼히 읽을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연설과 지역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말씀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10월 11일 전남대학교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김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4시경 KTX편으로 광주에 도착,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 점



5일 개막하는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4일 오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등식 및 지난해 6월 개최된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18 민주묘지에 도착해 방명록에 '不滅(불멸)의 偉業(위업) 永世不忘(영세불망)'이라고 적은 뒤, 현화·분향·묵념 순으로 참배식을 마쳤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참배식 후 휠체어로 대기중인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국가보훈처 직원으로부터 들어 영화 '화려한 휴가' 상영과 추모관 개관으로 인해 참배객이 지난해 보다 50% 가량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라며 흡족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14일 신당 '원샷 경선' 중앙선관위 위탁관리

중앙선관위는 대통합민주당이 일괄 경선으로 오는 14일 실시되는 8개 지역 대선 후보 경선을 위탁관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신당의 요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작업 등을 거쳐 선관위가 당일 경선을 위탁관리키로 했다"며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기·대전·충남지역 경선의 경우 민주당 경선(13일)이 끝난 다음날 실시돼 터치스크린 설치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전자투표 대신 종이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선 공정성 '이전투구' 범여 후보들

10·4 선언 발표되자 '평화대통령' 경쟁

경선의 공정성 시비를 둘러싼 이전투구에 함몰돼온 범여권 대선후보들이 모처럼 '평화이슈'로 시선을 돌렸다.

남북 정상회담의 '10·4 공동선언' 발표로 평화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서로 '준비된 평화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대통합민주당의 이해찬 후보는 직접 국회 브리핑룸에 나와 공동선언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고,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 장관 재직시절의 개성공단 추진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을, 손학규 후보는 '햇볕정책의 계승자'라는 점을 각각 강조하며 평화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애썼다.

손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든든한 초석이자 남과 북이 하나됨으로 발전하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 후보도 논평을 내고 "10·4 합의는 평화와 경제

가 선순환하는 한반도시대의 집약적 표현"이라며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란 한 점(點)이 이제 철도라는 선(線)을 통해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면(面)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회의를 한반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순형 후보측 장진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인제 후보측 이기훈 대변인은 "경제협력, 군축분야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동영 죽이기 배후는 참평포럼"

鄭후보측 주장 '파란'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4일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정동영 죽이기'의 배후로 지목하고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측은 지난 1일 참평포럼 긴급 운영위 발원록을 근거로 제시하

며 "당 해체와 친노 신당 만들기를 위한 쿠데타 음모"라고 공격하고 나서 이 후보측과 참평포럼이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참평포럼 운영위원들은 긴급운영위에서 "정동영 사퇴를 요구해야. 나아가 당 지도부에 출당요구해야. 당에

서 후보박탈하도록 밀어붙여야", "판을 깨거나 끝까지 가서 우리가 패배하는 경우 등 긴급사태시 대통합신당은 우리 머리 속에서 지워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이모 운영위원은 "이병완 대표가 스스로 여차하면 당 만들자고 했었다(참평초기에). 우리가 소생하려면 정동영 출당시켜야. 당을 깨고 나가 신당 만들 시간은 없다. 정동영 출당만이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약품 '큐텐'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대한 소비자자기 돕는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지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
- 눈의 건조감과 안구 피로 완화
- 지방 피부를 도와 미백 효과
- 피부, 근육의 탄력, 지방분해, 미용효과
- 뱃살을 없애고 뱃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 운동의 원동력 제공, 근육 강화, 수축력을 높여줍니다
- 아연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yoten.com

고객센터 080-022-2200